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¹⁾

The Effect of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손신영²⁾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목적 : 본 연구는 근로의 조건과 형태는 개별 근무자들의 경제적 지위, 사회심리적인 상태, 건강 관련 행태, 직무상의 유해요인 노출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양한 경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주관적 건강상태와 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관리 정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써 1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를 이용하였으며 노동패널 중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문항에 응답한 4,3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연령($\beta = -.23, p < .001$), 경제적 수준($\beta = .12, p < .001$), 성별($\beta = -.11, p < .001$), 교육수준($\beta = .07, p = .001$)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근로자는 연령($\beta = -.31, p < .001$), 경제적 수준($\beta = .13, p < .001$),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beta = -.05, p < .001$), 성별($\beta = -.09, p = .001$), 교육수준($\beta = .09, p = .001$), 정해진 근로시간($\beta = -.07, p = .007$)로 나타났다.

결론 : 정규직근로자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근무조건 같은 사회구조적인 것에 의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가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가 주관적 건강뿐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의 건강상태나 만성질환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건강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 김영미 부산남부발전 보건관리자,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출판이사〉

1)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1년 11월호 (20권 제3호) 게재
2) 교신저자: 손신영, Sohn, Shinyoung, angel6484@naver.com